

대한 류마티스 건강 학회지 논문분석을 통한 연구경향 분석 -창간호부터 2003년도까지-

박경숙¹⁾ · 최은희²⁾ · 류언나³⁾ · 황윤영⁴⁾ · 정혜경⁵⁾
안양희⁶⁾ · 백훈정⁷⁾ · 임난영⁸⁾ · 이은옥⁹⁾

- | | | |
|-------------------------|---------------------|------------------|
| 1)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4) 제주한라대학 전임교수 | 7) 여주대학 간호과 교수 |
| 2)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 | 5)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8)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3) 중앙대학교 대학원생 | 6) 연세대학교 원주 간호학과 교수 | 9)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n analysis on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Park, Kyung Sook¹⁾ · Choi, Eun Hee²⁾ · Ryoo, Eon Na³⁾ · Hwang, Yun Young⁴⁾
Chung, Hae Kyung⁵⁾ · Ahn, Yang Heui⁶⁾ · Paik, Hoon Jung⁷⁾
Lim, Nan Young⁸⁾ · Lee, Eun Ok⁹⁾

- 1) 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g Ang University
- 2) Hear Nurse, ICU, Chung 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Corresponding author
- 3) Graduate student, Dep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Chung Ang University
- 4) Full time lecturer, Dept of Nursing, Cheju Halla College
- 5) Professor, Dep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 6) Professor, Dep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 7) Professor,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 8)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 Yang University
- 9)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 of research on the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and to suggest future perspective for nursing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ontents of 131 researches published in this journal from its beginning year 1994 to year 2003. **Result:** In the 85.5% researches, type of the research subjects was patient. research that subject is patient' family was none. An analysis of the research design showed, non-experimental research was 67.2%, experimental research was 26.7%, qualitative research was 5.3%, triangulation research was only one. In the experimental design, types of nursing

intervention were movement intervention 38.4%, cognitive intervention 38.4%. and true experimental research was none.

Among non-experimental researches, 93.2% was survey method, methodological research was two, concept analysis research was two, Q-method was one. **Conclusion:** There has been a lack of qualitative research, true experimental research, research using vary nursing intervention. Further research need nursing intervention development that intervention can be use in actual nursing care area.

Key words : Nursing research, Research analysis, Rheumatoid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Eun Hee
Chung 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82-1, pil-dong 2ga, Jung-gu, Seoul, Korea
Tel: +82-2-2260-2224 E-mail: ichio9201@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관절통이나 관절염을 일으키는 질환을 통틀어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는데(Lee, 1994)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만성 비특이적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임상적으로는 주로 만성적인 다발성 관절염을 일으키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의 손상을 초래하여 기능의 장애를 남기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Harris, 1997; Reil, Wijnands & Putte, 1998).

류마티스 관절염은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거듭 되면서 진행되는 만성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의 통증, 뻣뻣함과 같은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 무력감 같은 심리적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질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상생활 활동의 의존정도는 심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의 중요한 목표는 증상을 완화하여 기능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Archenholtz & Bjelle, 1997).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는 약물요법, 운동요법, 물리치료 등이 있으나(Riemsma, Taal, Brus, Rasker & Wiegman, 1997).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어렵고 평생동안 증상 조절이 요구되므로 진단을 받을 때부터 적절하게 자기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Park, 2001).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병변으로 인한 통증과 더불어 관절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영향이 신체적인 면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심리, 직업, 취미에까지 파급되므로 병 자체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함이 강조된다(Kim & Han, 1994). 간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간호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 류마티스 건강전문학회에서는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자조관리, 수중운동, 신전운동, 타이치 등의 운동요법을 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한 류마티스 건강전문학회지를 통해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관절염환자 및 이들 가족이

투병 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절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질환의 치료와 간호를 향상시키고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한 질적 간호의 제공은 질병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류마티스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나 연구 내용을 고찰하고 류마티스 주제나 이론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통합하여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류마티스 관련 논문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연구 분석은 간호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간호사들은 연구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결론을 얻고 이를 임상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Redfern,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 류마티스 건강전문학회지'를 창간호(1994)부터 2003년까지 출판한 연구 논문들을 여러 측면에서 분류,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여 학문적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며,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류마티스 건강학회지에 출판된 논문을 분석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연구동향을 알아내고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자료

본 연구는 1994년 창간호부터 2003년까지 대한 류마티스 건강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31편의 내용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선행 문헌과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작성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연구 장소, 책임연구자 신분, 연구유형, 연구 설계, 연구도구, 자료수집방법, 간호중재 등이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version으로 빈도, 백분율 등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지난 10년 간(1994년~2003년) 대한 류마티스 건강학회지에 발표된 간호학 논문은 총 131

<Table 1> Character of research subject
N=131(%)

	Items	N(%)
type	patient	112(85.5)
	healthy person	12(9.2)
	nurse	4(3.0)
	internet, et al	3(2.3)
age	adult	107(81.7)
	elderly	16(12.2)
	above 10 years	1(0.8)
	other(tool development, concept analysis)	7(5.3)
	sex	male & female
male		3(2.3)
female		47(35.9)
other(tool development, concept analysis)		7(5.3)
disease of patient*	rheumatic arthritis	90(54.9)
	degenerative arthritis	41(25)
	fibromyalgia	9(5.5)
	ankylosing spondylitis	6(3.7)
	SLE	4(2.4)
	chronic back pain	3(1.8)
other(skeletal muscle ds, cancer et al)		11(6.7)

* duplicated items

편이었다. 이중 양적연구가 123편(93.1%), 질적 연구 7편(5.3%), 트라이앵글레이션 1편(0.8%)이었다.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전체 131편 중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85.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일반인, 간호사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성인이 81.7%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은 12.2%를 차지하였다.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56.5%, 여성만 대상으로 한 경우가 35.9%로 여성이 포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기타에는 도구개발, 논문을 분석한 내용들이 있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질환별 분포를 살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5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섬유조직염, 강직성 척추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 만성요통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2. 연구 장소

연구 장소는 병원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22.1%, 병원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경우 9.2%의 순이었다(Table 2 참조).

<Table 2> Research place N=131(%)

research place	N(%)
hospital	80(61.1)
community	29(22.1)
hospital & community	12(9.2)
no application(tool development, concept analysis et al)	6(4.6)
other(foreign country, internet homepage et al)	4(3.1)

<Table 3>Chief researcher(First author) N=131(%)

position of chief researcher	N(%)
professor	99(75.6)
nurse	13(9.9)
student(graduate student)	8(6.1)
assistant teacher	4(3.0)
part time lecturer	3(2.3)
education department of society	2(1.5)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1(0.8)
clinical exercise physiology lab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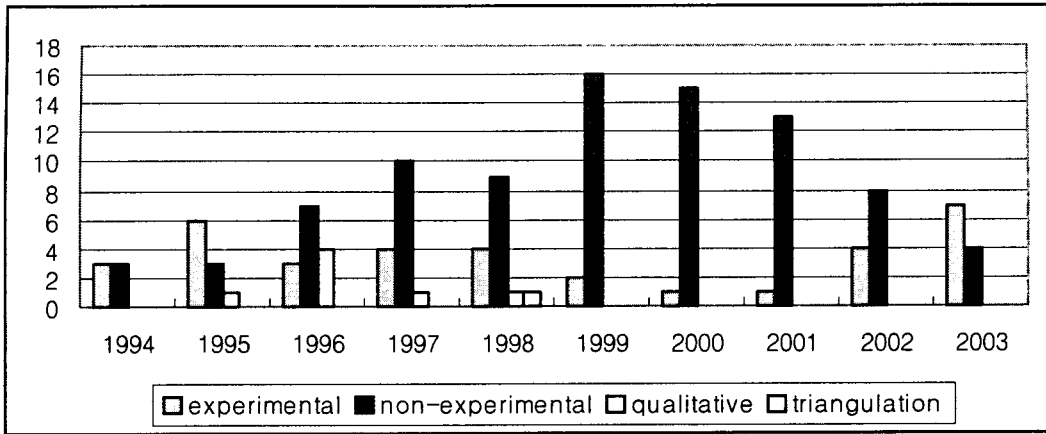
3. 책임연구자 신분

책임연구자의 신분 분석 시 여러 명이 공동 연구한 것이 많으므로 주 저자를 대표 투고자로 하여 분석하였다.

책임연구자 신분은 교수(75.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호사(9.9%), 학생(6.1%), 조교(3.0%)의 순이었다<Table 3 참조>.

<Table 4> Research type by year N=131(%)

year	experimental research(%)	non experiment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triangulation(%)	N(%)
1994	3(50.0)	3(50.0)			6(100)
1995	6(60.0)	3(30.0)	1(10.0)		10(100)
1996	3(21.4)	7(50.0)	4(28.6)		14(100)
1997	4(26.7)	10(66.7)	1(6.6)		15(100)
1998	4(26.7)	9(60.0)	1(6.6)	1(6.6)	15(100)
1999	2(11.1)	16(88.9)			18(100)
2000	1(6.3)	15(93.7)			16(100)
2001	1(7.1)	13(92.9)			14(100)
2002	4(33.3)	8(66.7)			12(100)
2003	7(63.6)	4(36.4)			11(100)
N(%)	35(26.7)	88(67.2)	7(5.3)	1(0.8)	131(100)



〈Figure 1〉 research type by year

4. 연구유형

전체 131편의 논문 중 실험연구는 26.7%, 비 실험연구는 67.2%이었고, 질적연구는 5.3%, 트 라이앵글레이션 0.8%를 차지하였다. 질적연구는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만 7편이 게재되었으며, 1999년 이후에는 한편도 없었다. 실험연구는 2003년도에 이르러서 63.6%를 차지하면서 비실

험연구 보다 증가하였다(〈Table 4, Figure 1 참조〉).

5. 연구설계

연구설계에서 양적 연구가 123편, 질적 연구가 7편, 트라이앵글레이션이 1편이었다. 양적 연구를 다시 실험연구와 비실험연구로 나누어보면, 실험

〈Table 5〉 Research design

N = 131(%)

type		category N(%)		design	
		N(%)			
quantitative research (123)	experimental research (35)	quasi-experimental	18(51.4)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12(34.3)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6(17.1)
	non-experimental research (88)	pre-experimental	17(48.6)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17(48.6)
				survey	82(93.2)
qualitative research (7)	triangulation (1)			descriptive	36(40.9)
				comparative	8(9.1)
				correlational	38(43.2)
				concept analysis	2(2.3)
				Q - method	1(1.1)
		tool development	2(2.3)		
		review research	1(1.1)		
				phenomenology	5(71.4)
				grounded theory	2(28.6)
					1(100)

<Table 6> Measurement tool by year

*N=267(%)

measurement tool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N(%)
physical measurement	3	5	10	8	12	13	7	10	8	9	85(31.8)
emotional tool	5	8	10	9	9	10	13	7	8	9	88(32.9)
social tool	3	4	6	8	9	6	8	9	9	5	67(25.0)
cultural tool							1			1	2(0.7)
spiritual tool							1				1(0.3)
other			1	5	1	1	1	4		2	15(5.6)
no application		1	4	2	1	1					9(3.3)

* duplicated items

연구 35편중 유사실험이 51.4%, 원시실험이 48.6%로 나타났으며, 유사실험연구에서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34.3%, 비동등성 대조군 시차설계 17.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원시실험 연구는 모두 단일군 전후설계였으며 실험연구 중 순수 실험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비실험연구 88편은 조사연구와 개념분석, Q 방법론, 도구개발, 종설연구로 나타났다. 조사연구는 82편으로 서술적 조사연구는 40.9%, 비교 조사연구 9.1%, 상관성 조사연구가 43.2%를 차지하였다. 개념분석과 도구개발 연구가 각각 2편이었고, 종설연구와 Q 방법론이 각각 1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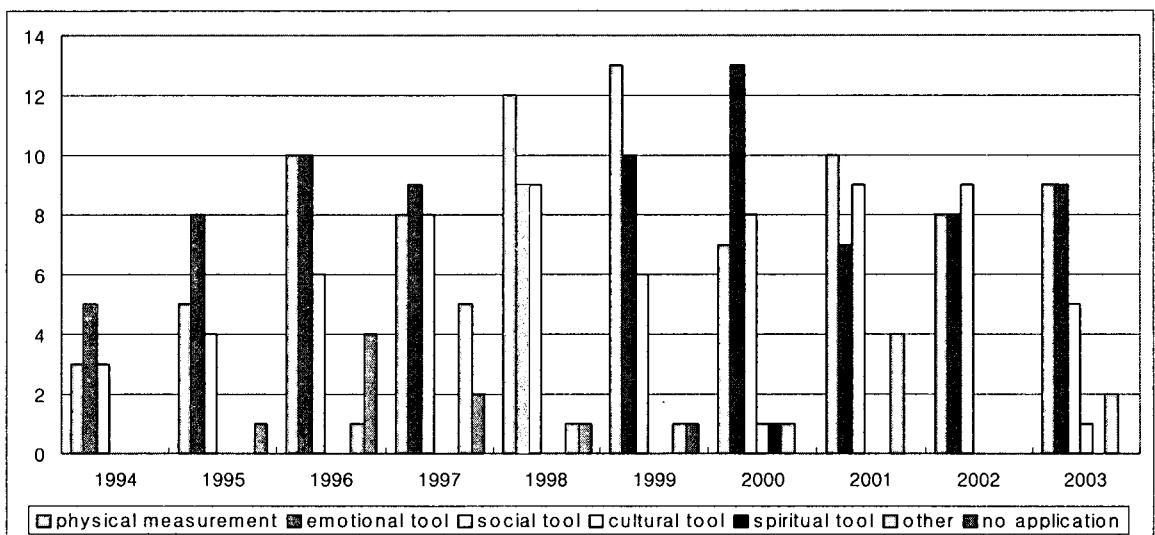
질적 연구 7편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가 5편이

었고 근거이론적 연구가 2편, 트라이앵글레이션은 1편이었다<Table 5 참조>.

6. 연구도구

연구도구에서 신체적 측정법은 관절운동범위 측정, 근력측정, 관절 각도 등이며, 정서적 도구는 우울, 피로, 통증,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삶의 질 등이며, 사회적 도구는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사회적 적응, 집단 응집력 등이며, 문화적 도구는 인터넷 상담내용 등이며, 영적 도구는 영적 고통을 말한다.

연구도구는 논문 한 편당 2개 이상의 연구도구



<Figure 2> measurement tool by year

<Table 7> Data collection method by year

*N = 175(%)

Item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N(%)
physical measurement	4	5	7	2	2	2	2	5	3	4	36(20.6)
interview	1	2	2	3	1	3		1	3	1	17(9.7)
question	5	7	8	12	13	16	15	14	11	11	112(64.0)
observation	4			1							5(2.9)
other							1			1	2(1.1)
no application				2		1					3(1.7)

* duplicated items

를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신체적 측정법 85개(31.8%), 정서적 도구를 88개(32.9%), 사회적 도구 67개(25.0%), 문화적 도구 2개(0.7%)의 순으로 사용하였으며 기타 5.6%에는 현황조사, 의무기록 분석, 논문분석 등이 포함되었다(Table 6, Figure 2 참조).

7. 자료수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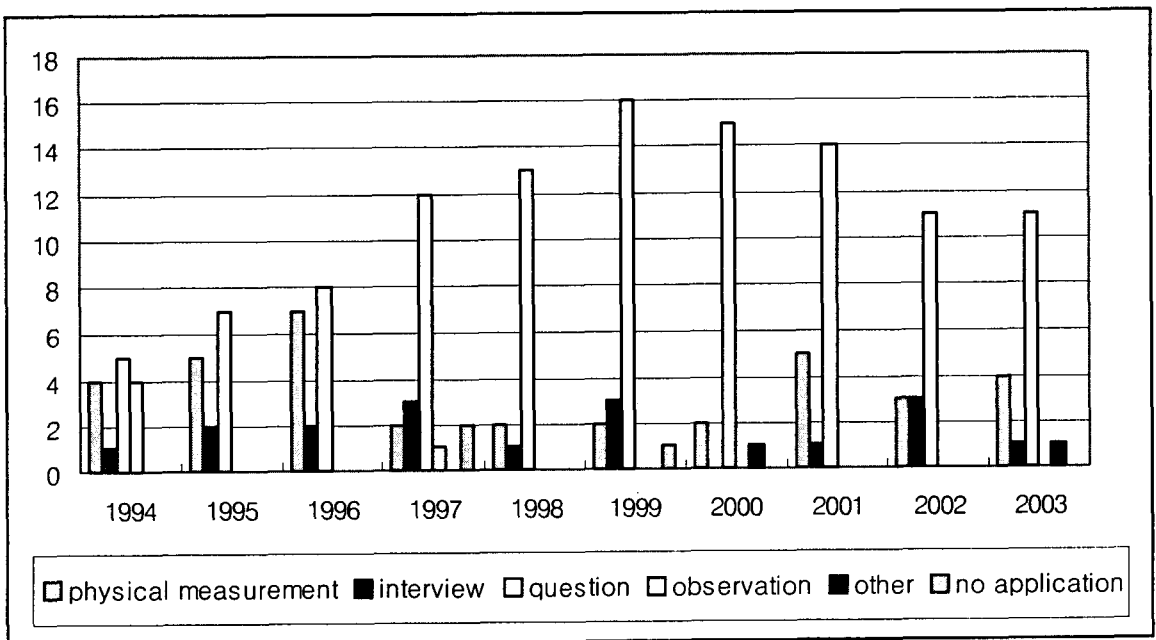
자료수집 방법은 논문 한 편당 1개 이상의 자

료수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이 112개 64.0%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생리적 측정법 36개(20.6%), 면접법 17개(9.7%), 관찰법 5개(2.9%)의 순이었다(Table 7, Figure 3 참조).

8. 간호중재

실험연구에서 사용된 간호중재를 Snyder (1992)의 독립적 간호중재에 의해 분류해 본 결



<Figure 3> data collection by year

IV. 논 의

<Table 8> Nursing intervention in experimental research

*N=39(%)

Item	nursing intervention	N(%)
cognitive intervention	self-help program	11(28.2)
	value clarification training	1(2.6)
	assertiveness training	1(2.6)
	health belief and efficacy expectation promoting program	1(2.6)
	yoga	1(2.6)
	subtotal	15(38.4)
movement intervention	aquatic exercise	5(12.8)
	Tai Chi	3(7.7)
	resistance exercise	1(2.6)
	flexibility exercise	1(2.6)
	PACE	1(2.6)
	joint motion	1(2.6)
	brisk walking	1(2.6)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1(2.6)
	relaxation training	1(2.6)
	subtotal	15(38.4)
social intervention	home health care	3(7.7)
	peer group meeting	1(2.6)
	subtotal	4(10.3)
sensory intervention	heat and cold therapy	4(10.3)
	music therapy	1(2.6)
	subtotal	5(12.8)

* duplicated items

과 운동중재(38.4%)와 인지적 중재(38.4%)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감각적 중재(12.8%), 사회적 중재(10.3%) 순으로 이용되었다. 운동중재에서는 수중운동이 12.8%, 타이치가 7.7%였으며 저항운동, 유연성 운동, PACE(patient arthritis can exercise), 근관절 운동, 걷기운동, 근력강화 운동, 이완훈련이 각 1건씩 포함되었다.

인지적 중재에는 자조관리 프로그램이 28.2%, 가치명료화 훈련, 주장훈련, 건강신념 및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 요가가 각 1건씩 2.6%이 포함되었으며 감각적 중재에는 냉온요법 10.3%, 음악요법 2.6%이 포함되었고 사회적 중재에는 가정간호 7.7%와 환우모임 1건 2.6%이 포함되었다<(Table 8 참조)>.

본 연구는 대한 류마티스건강학회지가 창간된 1994년부터 10년 동안 대한 류마티스건강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만성 관절염 등의 연구 경향과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은 환자가 85.5%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인(9.2%), 간호사(3.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성인인 경우가 81.7%로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노인인 경우는 12.2%로 나타났다. 이는 Choi 등(2000)의 연구에서 대상자 중 환자가 32.1%로 나타난 것과 Suh 등(2001)의 연구에서 환자가 전체 대상자의 46.3%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류마티스 전문학회지라는 특성상 주로 환자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며, 대부분 성인기의 대상자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질환의 발생시기가 주로 성인기 후반인 것(Jeon et al, 2003)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녀 모두인 경우가 56.5%였으며 여자인 경우는 35.9%, 남자인 경우는 2.3%로 여자 대상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구대상자의 성별이 남녀 모두인 경우에도 여자 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은 것(Jeon et al, 2003)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대상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54.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퇴행성 관절염(25%), 섬유조직염(5.5%), 강직성 척추염(3.7%), 전신성 홍반성낭창(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논문의 경우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질병의 특성상 환자가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장소로는 병원인 경우가 61.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22.1%), 병원과 지역사회(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영역이 병원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실제로는 대상자가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병원을 통해서 소개받은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책임연구자는 교수인 경우가 75.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간호사 9.9%, 대학원생 6.1%, 조교 3.0% 등으로 나타나,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간호지식체의 발전을 위해 임상에서의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 류마티스 건강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은 총 131편으로 양적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93.8%), 질적연구는 7편으로 전체의 5.3%로 나타났다. 이는 관절염에 관한 국내 간호학 연구논문을 분석한 Park과 Back(2000)의 연구에서 양적연구가 79.8%, 질적연구가 8.7%로 나타난 것과, Suh 등(2001)이 성인간호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가 89.0%, 질적연구가 10.3%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에 비해 양적 연구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질적 연구의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양적 연구는 주로 관련변수를 서술하고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기능을 하는 반면, 질적 연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과 관심을 환기시키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의 배합방법인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적용한 연구가 단 1편 뿐으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요소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적 연구에서는 비실험 연구가 88편으로

67.1%를 차지하였으며 실험연구가 35편으로 26.7%를 차지하여, Park과 Back(2001)의 연구에서 비실험 연구와 실험 연구가 각각 63.6%와 36.4%로 나타난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사연구와 상관관계 연구 등 비실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연구가 후속 연구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험여건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실험 연구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순수실험 연구가 단 1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단적인 예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으며, 간호지식체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연구설계에서는 순수 실험연구가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유사실험연구에서 실험장소를 살펴보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임의 추출한 배경을 분석해 보았다.

실험장소로는 대학병원이 11개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이 4개, 보건소 1개, 노인정 1개, 사회복지관 1개, 양로원 1개로 나타났다. 대부분 유사실험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임의 추출한 이유는 실험처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생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대조군을 짝짓기(matching)방법으로 추출한 연구가 6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4개의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임의 추출한 기준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비실험 연구에서는 조사연구가 93.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개념분석 연구와 도구개발 연구, Q방법론 연구 등이 이루어졌고 이는 Suh 등(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도구로는 정서적 도구와 신체적 측정법이 각각 32.9%와 31.8%로 나타나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사회적 도구 25.0%, 문화적 도구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연구대상 질환이 통증

을 동반하며 일상활동의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신체적인 불편감과 정서적인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기 때 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이 64.0%로 가장 많았으며, 생리적 측정법(20.5%), 면접법(9.7%), 관찰법(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험연구에 주로 사용된 간호중재는 수중 운동, 저항운동, 유연성운동, 걷기운동, 근관절운동, PACE, 타이치, 자조관리 프로그램, 주장훈련, 이완요법, 냉온요법, 가정간호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운동중재와 인지적 중재가 각각 38.4%와 38.4%를 차지하였다.

이는 관절염에 관한 연구에서 수중운동, 저항운동, PACE, 유연성운동, 자조관리 과정, 이완훈련, 가정간호, 냉온요법 등의 간호중재가 사용되었으며, 그 중 운동중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결과(Park, Back, 2000)와 일치하였다.

특히 운동중재 중에서도 수중운동은 체중부하를 최소화시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며, 통증을 감소시키고 지구력을 강화시켜 신체활동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4; Kim et al, 1997), 무릎관절 각도와 하지근력의 증가, 체중감소의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됐다(Lee et al, 1998). 인지적 중재에서는 자조관리 프로그램이 전체의 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대상자 스스로가 평생 동안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자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간호중재로 적용된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정간호, 환우모임 등의 사회적 중재는 전체 중재의 10.3%를 차지하여 가장 적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성질환 대상자들의 자가 관리에 있어서 사회 환경적인 지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중재들 외에도 요가, 태극운동 프로그램, 음악요법, 건강신념 및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 환우모임 등의 중재들이 새롭게 시도되어 만성 관절염 등에 대한 간호중재의 폭을 넓힌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재의 개발과 적용에 관련된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적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5편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했으며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2편으로 28.6%로 나타나,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는 Suh 등(2001)의 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질적 연구 논문에 생활기술적 방법, 자연주의적 방법, 근거이론적 방법, 현상학적 방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는 박상연과 백명화(2000)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한 류마티스 건강학회지에 1994년 창간호에서부터 2003년까지 게재된 10년간의 논문 131편 전수를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1. 연구대상자를 살펴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8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반인 9.2%, 간호사 3.0%의 순이었으며 환자가족을 대상한 연구는 없었다.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성인이 81.7%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은 12.2%를 차지하였다.
2. 연구 장소는 병원이 61.1%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는 22.1%,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경우는 9.2%로 나타났다.

3. 책임연구자 신분은 교수 75.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호사 9.9%, 학생 6.1%, 조교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유형을 살펴보면 비실험 연구가 88편(67.1%)을 차지하였고 실험연구는 35편(26.7%), 질적 연구는 7편(5.3%)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혼합방식인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가 1편으로 나타났다.
5. 연구설계를 살펴보면 실험연구 중 순수 실험연구는 한편도 없었고 유사 실험연구가 18편 51.4%, 원시실험연구가 17편 48.6%이었다. 유사 실험연구에서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가 12 편 34.3%, 비동등성 대조군 시차설계는 6편 17.1%를 차지했고 원시실험연구는 17편 48.6%로 모두 단일군 전후설계를 사용하였다.
비실험연구에는 조사연구가 82편으로 93.2%를 차지하였고 이중 상관성 조사연구 38편(43.2%), 서술적 조사연구 36편(40.9%), 비교조사연구 8편(9.1%)이었으며 개념분석 2편(2.3%), 방법론적 연구(도구개발 연구) 2편(2.3%), Q 방법론과 종설연구가 각 1편(1.1%)이었다.
질적연구 7편 중에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5편(71.4%), 근거이론이 2편(28.6%)이었다.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혼합방식인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는 1편이었다.
6. 연구도구는 신체적 측정법 31.8%, 정서적 도구 32.9%, 사회적 도구 25.0%, 문화적 도구 0.7%의 순으로 이용되었으며 기타 5.6%에는 현황조사, 의무기록 분석, 논문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7.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법이 64.0%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생리적 측정법 20.6%, 면접법 9.7%, 관찰법 2.9%의 순이었

다.

8. 실험연구에서 사용된 간호중재의 종류를 살펴보면 운동중재가 38.4%, 인지적 중재가 38.4%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운동중재에서는 수중운동이 5건(12.8%)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인지적 중재에는 자조관리 프로그램이 11건(28.2%)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이상을 통해 좀더 다양한 간호중재를 적용한 실험연구와 함께 이를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질환의 특성상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양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 연구도 요구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간호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험연구와 간호지식체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질적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 분석하는 메타분석 연구도 제안할 만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Archenholtz, J., & Bjelle, A. (1997). Reliability, Validity and Sensitivity of a Swedish version of the revised and expanded arthritis impact measurement scales (AIMS 2). *The Journal of Rheumatology*, 24(7), 1370-1377.
- Choi, K. S., Song, M. S., Hwang, A. R., Kim, K. H., Chung, M. S., Shin, S. R., & Kim, N. C. (2000).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30(5), 207-218.
- Harris, E. (1997). *Rheumatoid arthritis*. 1st ed. WB Saunders Co., Philadelphia, 215-225.
- Jeon, S. J., Kim, K. M. J., Park, J. S., Lee, M. H., & Jo, J. S. (2003). *Adult nursing*, 3rd edition, Seoul, Hyunmonsas.
- Kim, J. H., & Hann, T. R. (1994). *Rehabilitation Medicine*, Seoul, Samha publishing company.
- Kim, J. I. (1994). Effect of aquatic exercise program with self-help group activities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self-efficacy on pain, physiological parameter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having rheumatoid arthritis,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1(1), 1-30.
- Kim, J. I., Kang, H. S., Choi, H. J., & Kim, I. J. (1997). The effect of aquatic exercise program on pain, physical index,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4(1), 15-25.
- Lee, M. R. (1996). *The effect of a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program on muscle strength pain, depression,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master thesis,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S. H. (1994). Definition, symptom and diagnosis of arthritis,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1(1), 117-126.
- Lee, Y. O., Choi, M. H., Kim, J. I., & Lee, T. Y. (1998). Effect of aquatic exercise program on lower limbs, muscle strength, knee joint flexion and pain changes of arthritis patients.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5(2), 222-237.
- Park, I. H. (2001). *Effect of empowerm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patient having rheumatoid arthritis on empowerment, health status and self-care activiti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Seoul.
- Park, S. Y., & Back, M. W. (2000). The analysis of research in arthritis,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7(2), 227-240.
- Redfern, S. (1997). Review article in th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J. of Clini Nursing*, 6, 251-252.
- Riel, P. L. C. M., Wijnands, M. J. H., Putte, L. B. A. (1998).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active inflammatory disease*. In, Klippel J.H, Deippe P.A(eds), *Rheumatology*. 2nd ed, Mosby, London, 5-14, 1-14, 12.
- Riemsma, R. P., Taal, E., Brus, H. L. M., Rasker, J. J., & Wiegman, O. (1997). Coordinated individual education with an arthritis passport for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Arthritis care and Research*, 10(4), 238-249.
- Suh, M. J., Kim, S. S., Song, M. S., Yee, M. S., Oh, E. G., Shin, K. R., Kim, O. S., Lee, S. J., Lee, Y. J., Oh, H. S., Jung, J. S., & Kim, C. K. (2001). An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1989-200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3(4), 571-580.

Snyder, M. (1992).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s*, Delmar Publishers Inc., 2nd ed, NY